

# 아동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상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 Research on the Variables Predicting Children's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the Perception of Human Rights

민미희<sup>1</sup> 성미영<sup>2</sup>

Mi Hee Min<sup>1</sup> Mi Young Sung<sup>2</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the perception of human rights depending on child variables, family variables, school variables, and predictive influences among these variables. The participants were 1,364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Children's and Youth's Rights(2013)'.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variables influencing children's human rights sensitivity were school life experience, grade, the degree to which adolescents think they are respected in deciding family issues, gender, experiences of teacher's swear words, experiences of being neglected, and experiences of being bullied at school. Second, the variables influencing children's perception of human rights were gender, experiences of parents' swear words, school life experience, the degree to which adolescents think they are respected in deciding family issues, and father's educational achieve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offered fundamental data about the important issues in researching children's right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m.

#### <sup>1</sup> 제1저자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 <sup>2</sup> 교신저자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e-mail : minie72@dongduk.ac.kr)

**Key words** Human Rights Sensitivity, Perception of Human Rights, Elementary School Children

## I. 서론

인권은 단순한 인간의 권리(rights of man)라기 보다는 인간답게 살 권리(human rights)로서 모든 사람들이 빈곤, 문맹, 문화적, 정치적 불평등이나 억압을 받지 않고 태어날 때 부터 존중받으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일컫는다(Reichert, 2003). 인권은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데(황혜원, 2011), 아동은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약자이면서 미래세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동 인권이 보호되고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아동 인권에 대한 연구들은 아동·청소년 인권의 개념을 규명하거나(배경내, 2006; 이재연, 황옥경, 김효진, 2009; 최윤진, 2000),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지표 체계를 개발하여 그 현황을 진단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모상현, 김영지, 김영인, 이민희, 황옥경, 2010; 모상현, 김희진, 2009; 임희진, 김현신, 2011; 임희진, 김현신, 2012). 그러나 아동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동 자신이 스스로의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인권감수성과 인권상황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권감수성(human rights sensitivity)이란 특정 상황을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해보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즉 인권감수성은 인권관련 상황을 민감하게 지각하고,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며,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자신에게 귀인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보다 정의적·행동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홍봉선, 아영아, 2012). 이와 같이 인권감수성은 인권 관련 상황의 구체적인 장면에서 적용되는 보다 실제적인 개념(조윤정, 2006)이라는 점에서 다음의 인권상황인식과 구별된다. 인권상황인식(the perception of human rights)은 인권과 관련한 지식, 또는 인권 및 인권침해를 구분할 수 있는 인지적이고 포괄적인 능력을 의미한다(홍봉선, 아영아, 2012). 즉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권리가 함께 보호받는 삶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특히 아직 인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인권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구정화, 설규주, 송현정, 2009).

이와 같은 인권감수성과 인권상황인식에 대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이 인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동이 인권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아동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아동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상황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상호작용하는 대상들은 아동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상황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Bronfenbrenner(1976)의 생태학적 접근에 따르면 성장하고 있는 개인이 직접적으로 속해 있는 미시환경(microsystem)은 개인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정과 학교 등이 대표적인 미시환경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개인적 특성, 아동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에서 인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가 아동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상황인식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 변인이 아동의 권리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부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봐왔는데, 우선 아동 변인으로 성별(김영남, 2009; 김영신, 2010; 남동현, 2010; 류지현, 허창영, 2008; 유성렬, 김신영, 2013; 황혜원, 2011), 연령(이승미, 1999; 황혜원, 2011)이 아동의 인권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정 변인으로 부모의 학력수준(유성렬, 김신영, 2013; 유지민, 2004), 가정형편(유성렬, 김신영, 2013; 유지민, 2004), 의사결정시 부모태도(유성렬, 김신영, 2013),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함민아, 강현아, 2012), 가정 내 체벌(유성렬, 김신영, 2013),

차별경험(Thomas, 2007) 등이 인권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 학교 변인으로는 학교에서의 참여여건과 청소년 활동 참여 지지여부(유성렬, 김신영, 2013; Ife, 2012) 등이 인권상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아동의 권리인식에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대상도 중·고등학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인권의 개념이 나타나고(Wade, 1994), 인권과 관련된 개인적인 상황이나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태도 발달이 가능한 시기이다(Branson & Torney-Purta, 1982; Schultz, Selman, & LaRusso, 2003). 또한 인권은 아동기부터 스스로 인식하고 행사해야 할 권리인 동시에 이후에도 타인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므로(김왕준, 2012),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인식에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Bronfenbrenner(1976)의 생태학적 접근과 선행 연구결과에서 제시하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아동이 속해있는 주요 환경으로 가정과 학교가 갖고 있는 특성에 주목하여 초등학교 아동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상황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 변인으로 성별과 학년을, 가정 변인으로 부모의 학력, 가정형편, 방임경험, 부모체벌과 부모 욕설경험, 의사결정시 부모태도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고, 학교 변인으로 학교폭력경험, 교사체벌경험과 교사욕설경험,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아동 변인, 가정 변인, 학교 변인에 따라 아동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상황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변인이 아동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상황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인권 신장과 관련한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상황인식은 아동 변인(성별, 학년), 가정 변인(부/모 학력, 가정형편, 방임경험, 부모체벌경험, 부모욕설경험, 의사결정시 부모태도), 학교 변인(학교폭력경험, 교사체벌경험, 교사욕설경험, 학교생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 변인(성별, 학년), 가정 변인(부/모 학력, 가정형편, 방임경험, 부모체벌경험, 부모욕설경험, 의사결정시 부모태도), 학교 변인(학교폭력경험, 교사체벌경험, 교사욕설경험, 학교생활)은 아동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상황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2013년 데이터로서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총 1,364명이었다. 조사는 2013년 5월 27일~7월 18일에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의 성별은 남아 670명(49.1%), 여아 694명(50.9%)이었고, 4학년 357명(26.2%), 5학년 458명(33.6%), 6학년 549명(40.2%)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 이하 373명(27.4%), 전문대졸 이상 991명(72.6%)이었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 456명(33.4%), 전문대졸 이상 908명(66.6%)이었다. 아동이 인식하는 가정형편은 보통이하 419명(30.7%), 잘사는편 945명(69.3%)이었다. 아버지의 직업 유무는 있음 1269명(93.1%), 없음 14명(1.0%), 결측치 81명(5.9%)이었고, 어머니의 직업 유무는 있음 829명(60.8%), 없음 473명(34.7%), 결측치 62명(4.5%) 이었다.

<표 1> 연구 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N = 1,364)

변인	구분	n(%)
아동 성별	남	670(49.1)
	여	694(50.9)
아동 학년	4학년	357(26.2)
	5학년	458(33.6)
	6학년	549(40.2)
부 학력	고졸 이하	373(27.4)
	전문대졸 이상	991(72.6)
모 학력	고졸 이하	456(33.4)
	전문대졸 이상	908(66.6)
가정형편	보통이하	419(30.7)
	잘사는편	945(69.3)
부 직업 유무	있음	1269(93.1)
	없음	14( 1.0)
	결측치	81( 5.9)
모 직업 유무	있음	829(60.8)
	없음	473(34.7)
	결측치	62( 4.5)

## 2. 연구도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3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기준을 기초로 인권영역을 인권 일반과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조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따른 조사도구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다음의 변인들을 사용하였다.

### 1) 가정 변인

가정 변인은 부정적 영향요인에 해당하는 방임경험, 부모체벌경험, 부모욕설경험에 대한 문항과 긍정적 영향요인에 해당하는 의사결정시 부모태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방임경험은 최근 1년간 방임경험을 묻는 5개 문항(돌봐주는 사람 없이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적이 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더러운 이불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부모님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부모님은 내가 식사를 못해도 모른다. 부모님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모른다)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아동은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중에 선택하여 응답을 하였다. 이는 등간척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한번도 없음’은 방임경험 없음으로,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은 방임경험 있음으로 리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체벌경험은 최근 1년간 부모님으로부터의 신체적 벌을 받은 경험을 묻는 1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아동은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중에 선택하여 응답을 하였다. ‘한번도 없음’은 부모체벌경험 없음으로,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은 부모체벌경험 있음으로 리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욕설경험은 최근 1년간 부모님으로부터의 모욕적 말이나 욕설을 들은 경험을 묻는 1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아동은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중에 선택하여 응답을 하였다. ‘한번도 없음’은 부모욕설경험 없음으로,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은 부모욕설경험 있음으로 리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의사결정시 부모태도는 가정에서 의사결정시 부모님이 아동의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 지에 대해 묻는 3개 문항(부모님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장래 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도 존중해 주신다. 부모님은 학원을 선택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로 3~12점의 분포를 가지며,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결정시 부모님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1이었다.

## 2) 학교 변인

학교 변인은 부정적 영향요인에 해당하는 학교폭력경험, 교사체벌경험, 교사욕설경험에 대한 문항과 긍정적 영향요인에 해당하는 학교생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교폭력경험은 최근 1년간 학교 안에서 선후배, 친구들로부터의 폭력경험을 묻는 6개 문항(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맞아 본 경험. 따돌림을 당함.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협박을 당함. 성적인 희롱이나 추행을 당함)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아동은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중에 선택하여 응답을 하였다. ‘한번도 없음’은 학교폭력경험 없음으로,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은 학교폭력경험 있음으로 리코딩하여 분석하였다.

교사체벌경험은 최근 1년간 학교 선생님께서로부터의 신체적 벌을 받은 경험을 묻는 1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아동은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중에 선택하여 응답을 하였다. ‘한번도 없음’은 교사체벌경험 없음으로,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은 교사체벌경험 있음으로 리코딩하여 분석하였다.

교사육설경험은 최근 1년간 학교 선생님께서로부터의 모욕적 말이나 육설을 들은 경험을 묻는 1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아동은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중에 선택하여 응답을 하였다. ‘한번도 없음’은 교사육설경험 없음으로,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은 교사육설경험 있음으로 리코딩하여 분석하였다.

학교생활은 최근 1년 동안의 학교생활에 대해 묻는 6개 문항(나는 학교에서 쉽게 친구를 사귄다.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학교에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역코딩).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로 6~24점의 분포를 가지며,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5이었다.

### 3) 인권감수성

인권감수성은 여러 상황에 대한 인권감수성과 태도를 묻는 4개 문항(어려움(따돌림 등)에 처한 친구가 있으면 도와줄 것이다. 인권이 침해된 사람을 돕기 위해 단체나 모임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가난해서 굶어 죽거나 아파도 치료를 못 받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다.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역코딩))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로 4~16점의 분포를 가지며,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감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4이었다.

### 4) 인권상황인식

인권상황인식은 여러 의견들에 대한 생각을 묻는 5개 문항(아동은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역코딩). 어린이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필리핀, 중국 등)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로 5~20점의 분포를 가지며,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상황인식이 보다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0이었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독립표본  $t$ 검증, 일원변량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아동, 가정, 학교 변인에 따른 아동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상황인식의 차이

##### 1) 아동, 가정, 학교 변인에 따른 아동의 인권감수성의 차이

아동, 가정, 학교 변인에 따라 아동의 인권감수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아동 변인으로는 성별( $t = -4.16, p < .001$ ), 학년( $F = 28.24, p < .001$ )에 따라 아동의 인권감수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인권감수성이 높고, 학년에 따라 인권감수성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Scheffe검증을 통해 학년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4학년이 5학년과 6학년보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변인으로는 부 학력( $t = -3.81, p < .001$ ), 모 학력( $t = -3.83, p < .001$ ), 가정형편( $t = -2.35, p < .05$ ), 방임경험( $t = -6.59, p < .001$ ), 부모체벌경험( $t = -4.91, p < .001$ ), 부모욕설경험( $t = -5.39, p < .001$ ), 의사결정시 부모태도( $t = 9.55, p < .001$ )에 따라 아동의 인권감수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일 경우, 아동이 가정형편을 잘사는 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방임경험이 없는 경우, 부모체벌경험이 없는 경우, 부모욕설 경험에 없는 경우, 의사결정시 부모가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경우 아동의 인권감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교 변인으로는 학교폭력경험( $t = -2.69, p < .01$ ), 교사체벌경험( $t = -5.21, p < .001$ ), 교사욕설경험( $t = -6.71, p < .001$ ), 학교생활( $t = 10.59, p < .001$ )에 따라 아동의 인권감수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학교폭력경험이 없는 경우, 교사체벌경험이 없는 경우, 교사욕설경험이 없는 경우, 학교생활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인권감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2> 아동, 가정, 학교 변인에 따른 아동의 인권감수성의 차이 (N = 1,364)

변인		n	M(SD)	t(F)	
아동	성별	남	670	12.78(2.27)	- 4.16***
		여	694	13.28(2.16)	
	학년	4학년	357	13.75(2.11)	28.24*** 4학년>5.6학년
5학년		458	12.95(2.14)		
6학년		549	12.65(2.27)		
가정	부 학력	고졸 이하	373	12.66(2.22)	- 3.81***
		전문대졸 이상	991	13.18(2.21)	
	모 학력	고졸 이하	456	12.71(2.14)	- 3.83***
		전문대졸 이상	908	13.20(2.25)	
	가정형편	보통이하	419	12.82(2.18)	- 2.35*
		잘사는편	945	13.13(2.24)	
방임경험	있음	627	12.61(2.16)	- 6.59***	
	없음	737	13.40(2.22)		

<표 2> 계속

(N = 1,364)

변인		n	M(SD)	t(F)	
가정	부모체벌경험	있음	519	12.66(2.34)	- 4.91***
		없음	845	13.27(2.12)	
	부모육설경험	있음	379	12.52(2.34)	- 5.39***
		없음	985	13.24(2.15)	
의사결정시 부모태도+	상	817	13.49(2.09)	9.55***	
	하	547	12.35(2.25)		
학교	학교폭력경험	있음	432	12.80(2.20)	- 2.69**
		없음	932	13.15(2.23)	
	교사체벌경험	있음	247	12.37(2.32)	- 5.21***
		없음	1117	13.18(2.18)	
	교사육설경험	있음	197	12.06(2.37)	- 6.71***
		없음	1167	13.20(2.16)	
학교생활+	상	759	13.59(2.09)	10.59***	
	하	605	12.35(2.20)		

\*  $p < .05$ , \*\*  $p < .01$ , \*\*\*  $p < .001$ .

+ 평균값(의사결정시 부모태도 9.94점, 학교생활평균 20.80)을 기준으로 상, 하 집단 구분

2) 아동, 가정, 학교 변인에 따른 아동의 인권상황인식의 차이

아동, 가정, 학교 변인에 따라 아동의 인권상황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아동 변인으로는 성별에 따라 아동의 인권상황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 = -4.76, p < .001$ ).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인권상황인식이 보다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학년에 따라서는 아동의 인권상황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정 변인으로는 부 학력( $t = -3.89, p < .001$ ), 모 학력( $t = -3.32, p < .01$ ), 방임경험( $t = -2.22, p < .05$ ), 부모육설경험( $t = 2.25, p < .05$ ), 의사결정시 부모태도( $t = 5.74, p < .001$ )에 따라 아동의 인권상황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일 경우, 방임경험이 없는 경우, 부모육설경험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시 부모가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경우 아동의 인권상황인식이 보다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가정형편과 부모체벌경험에 따라서는 아동의 인권상황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교 변인으로는 학교폭력경험( $t = -1.85, p < .05$ ), 학교생활( $t = 4.99, p < .001$ )에 따라 아동의 인권상황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학교폭력경험이 없는 경우, 학교생활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인권상황인식이 보다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교사체벌경험과 교사육설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아동의 인권상황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3> 아동, 가정, 학교 변인에 따른 아동의 인권상황인식의 차이 (N = 1,364)

변인		n	M(SD)	t(F)	
아동	성별	남	670	16.97(2.72)	- 4.76***
		여	694	17.63(2.41)	
	학년	4학년	357	17.06(2.64)	2.46
5학년		458	17.46(2.61)		
6학년		549	17.34(2.53)		
가정	부 학력	고졸 이하	373	16.86(2.64)	- 3.89***
		전문대졸 이상	991	17.47(2.55)	
	모 학력	고졸 이하	456	16.98(2.65)	- 3.32**
		전문대졸 이상	908	17.47(2.54)	
	가정형편	보통이하	419	17.27(2.57)	- .31
		잘사는편	945	17.32(2.62)	
	방임경험	있음	627	17.14(2.66)	- 2.22*
		없음	737	17.45(2.52)	
가정	부모체벌경험	있음	519	17.40(2.58)	1.05
		없음	845	17.25(2.59)	
	부모육설경험	있음	379	17.56(2.57)	2.25*
		없음	985	17.21(2.59)	
	의사결정시 부모태도 <sup>+</sup>	상	817	17.63(2.47)	5.74***
		하	547	16.82(2.68)	
	학교폭력경험	있음	432	17.12(2.74)	- 1.85*
		없음	932	17.40(2.51)	
	교사체벌경험	있음	247	17.19(2.48)	- .78
		없음	1117	17.33(2.61)	
학교	교사육설경험	있음	197	17.24(2.73)	- .41
		없음	1167	17.32(2.56)	
	학교생활 <sup>+</sup>	상	759	17.62(2.45)	4.99***
		하	605	16.91(2.70)	

\* $p < .05$ , \*\* $p < .01$ , \*\*\* $p < .001$ .

+ 평균값(의사결정시 부모태도 9.94점, 학교생활평균 20.80)을 기준으로 상, 하 집단 구분

## 2. 아동, 가정, 학교 변인이 아동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상황인식에 미치는 영향

### 1) 아동, 가정, 학교 변인이 아동의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번에서 유의한 집단차이가 발견된 아동 성별, 학년, 부 학력, 모 학력, 가정형편, 방임경험, 부모체벌경험, 부모육설경험, 의사결정시 부모태도, 학교폭력경험, 교사체벌경험, 교사육설경험, 학교생활이 아동의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회귀분석 실시에 앞서,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

〈표 4〉 아동, 가정, 학교 변인이 아동의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N = 1,364)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B	$\beta$	B	$\beta$	B	$\beta$	
성별	.48	.10***	.34	.07**	.38	.08**	
아동 학년	5학년(d1)	-.79	-.16***	-.66	-.14***	-.48	-.10**
	(4학년) 6학년(d2)	-1.09	-.24***	-.90	-.19***	-.66	-.14***
가정	부 학력		.19	.03	.24	.04	
	모 학력		.31	.06*	.24	.05	
	가정형편		-.04	-.00	-.10	-.02	
	방임경험		-.41	-.09***	-.31	-.06**	
	부모체벌경험		-.23	-.05*	-.14	-.03	
	부모육설경험		-.13	-.02	-.10	-.02	
	의사결정시 부모태도		.19	.18***	.11	.10***	
학교	학교폭력경험				-.25	-.05*	
	교사체벌경험				-.05	-.00	
	교사육설경험				-.46	-.07*	
	학교생활				.17	.24***	
F	24.72***		18.75***		12.34***		
R <sup>2</sup>	.05		.12		.17		
$\Delta R^2$	.05		.07		.05		

주: 성별(남 0, 여 1), 학년(d1)(5학년), 학년(d2)(6학년), 부/모 학력(고졸 이하 0, 전문대졸 이상 1), 가정형편(보통이하 0, 잘사는편 1), 방임경험/부모체벌경험/부모육설경험/학교폭력경험/교사체벌경험/교사육설경험(없음 0, 있음 1)으로 더미변수화함.

\* $p < .05$ , \*\* $p < .01$ , \*\*\* $p < .001$ .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tion influence factor, VIF)와 Durbin-Watson 계수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VIF계수는 1.00~1.69점으로 10보다 현저하게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으므로 볼 수 있으며, Durbin-Watson 계수는 1.70~1.87점으로 잔차간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은 이론적 근거에 따라 연구자가 방정식에 투입할 변인들의 순서를 미리 정하는 방법으로(정옥분, 2010), 이 연구에서는 변인의 특성에 따라 아동 변인, 가정 변인, 학교 변인으로 구분하여 총 3수준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아동 변인인 성별과 학년으로 아동의 인권감수성을 예측하였고, 2단계에서는 가정 변인을 투입하여 총 9개의 변인으로 아동의 인권감수성을 예측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학교 변인을 투입하여 총 13개의 변인으로 아동의 인권감수성을 예측하도록 설정하였다.

1단계에서는 아동의 성별( $\beta = .10, p < .001$ ), 학년(d1)( $\beta = -.16, p < .001$ ), 학년(d2)( $\beta = -.24, p < .001$ )이 아동의 인권감수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즉 4학년이 5학년 및 6학년보다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났다. 2단계에 가정 변인을 투입한 결과 아동변인인 아동의 성별( $\beta = .07, p < .01$ ), 학년(d1)( $\beta = -.14, p < .001$ ), 학년(d2)( $\beta = -.19, p < .001$ )의 영향력이 다소 낮아졌다. 가정 변인인

모 학력( $\beta = .06, p < .05$ ), 방임경험( $\beta = -.09, p < .001$ ), 부모체벌경험( $\beta = -.05, p < .05$ ), 의사결정시 부모태도( $\beta = .18, p < .001$ )가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 학력과 가정형편, 부모육설경험은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아동 변인 및 가정 변인을 투입한 2단계에서 학년과 의사결정시 부모태도가 아동의 인권감수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 학교 변인을 투입한 결과 아동 변인인 학년(D1)( $\beta = -.10, p < .01$ ), 학년(D2)( $\beta = -.14, p < .001$ )의 영향력이 다소 낮아진데 반해 아동의 성별( $\beta = .08, p < .01$ )의 영향력은 다소 높아졌다. 가정 변인 중 방임경험( $\beta = -.06, p < .01$ )과 의사결정시 부모태도( $\beta = .10, p < .001$ )의 영향력이 다소 낮아졌고, 모 학력과 부모체벌경험의 영향력은 사라졌다. 학교 변인으로는 학교폭력경험( $\beta = -.05, p < .05$ ), 교사육설경험( $\beta = -.07, p < .05$ ), 학교생활( $\beta = .24, p < .001$ )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체벌경험은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아동, 가정, 학교 변인을 투입한 3단계에서 학교생활, 학년, 의사결정시 부모태도가 아동의 인권감수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아동이 학교생활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가정에서 의사결정시 부모가 아동의 의견을 존중할수록, 남아에 비해 여아가, 교사육설경험이 없을수록, 방임경험이 없을수록, 학교폭력경험이 없을수록의 순서로 아동의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종 모델은 아동의 인권감수성을 17% 설명하였다.

## 2) 아동, 가정, 학교 변인이 아동의 인권상황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번에서 유의한 집단차이가 발견된 아동 성별, 부 학력, 모 학력, 방임경험, 부모육설경험, 의사결정시 부모태도, 학교폭력경험, 학교생활이 아동의 인권상황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회귀분석 실시에 앞서,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tion influence factor, VIF)와 Durbin-Watson 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VIF계수는 1.00~1.69점으로 10보다 현저하게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Durbin-Watson 계수는 1.75~1.91점으로 잔차간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인권감수성과 마찬가지로 변인의 특성에 따라 아동 변인, 가정 변인, 학교 변인으로 구분하여 총 3수준의 단계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아동 변인인 성별로 아동의 인권상황인식을 예측하였고, 2단계에서는 가정 변인을 투입하여 총 6개의 변인으로 아동의 인권상황인식을 예측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학교 변인을 투입하여 총 8개의 변인으로 아동의 인권상황인식을 예측하도록 설정하였다.

1단계에서는 아동의 성별( $\beta = .12, p < .001$ )이 아동의 인권상황인식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2단계에 가정 변인을 투입한 결과 아동 변인인 아동의 성별( $\beta = .12, p < .001$ )의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가정 변인인 부 학력( $\beta = .07, p < .05$ ), 부모육설경험( $\beta = .12, p < .001$ ), 의사결정시 부모태도( $\beta = .13, p < .001$ )가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 학력과 방임경험은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아동 변인 및 가정 변인을 투입한 2단계에서 의사결정시 부모태도가 아동의 인권감수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 학교 변인을 투입한 결과 아동 변인인 아동의 성별( $\beta = .13, p < .001$ )의 영향력이 다소 높아졌고, 가정 변인 중 부 학력

( $\beta = .07, p < .05$ )과 부모육설경험( $\beta = .12, p < .001$ )의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의사결정시 부모태도( $\beta = .09, p < .01$ )의 영향력은 다소 낮아졌다. 학교 변인으로 학교생활( $\beta = .11, p < .001$ )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폭력경험은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아동, 가정, 학교 변인을 투입한 3단계에서 성별이 아동의 인권상황인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남아에 비해 여아가, 부모육설경험이 있을수록, 아동이 학교생활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가정에서 의사결정시 부모가 아동의 의견을 존중할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 수록의 순서로 아동의 인권상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종 모델은 아동의 인권상황인식을 6% 설명하였다.

〈표 5〉 아동, 가정, 학교 변인이 아동의 인권상황인식에 미치는 영향 (N = 1,364)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B	$\beta$	B	$\beta$	B	$\beta$	
아동	성별	.66	.12***	.65	.12***	.68	.13***
	부 학력			.41	.07*	.42	.07*
가정	모 학력			.22	.04	.17	.03
	방임경험			-.20	-.03	-.10	-.02
	부모육설경험			.69	.12***	.73	.12***
	의사결정시 부모태도			.16	.13***	.12	.09**
학교	학교폭력경험				-.08	-.01	
	학교생활					.09	.11***
	F	22.83***		13.00***		11.97***	
	R <sup>2</sup>	.01		.05		.06	
	$\Delta R^2$	.01		.04		.01	

주: 성별(남 0, 여 1), 부/모 학력(고졸 이하 0, 전문대졸 이상 1), 방임경험/부모육설경험/학교폭력경험(없음 0, 있음 1)으로 더미변수화함.

\*  $p < .05$ , \*\*  $p < .01$ , \*\*\*  $p < .001$ .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상황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아동 변인, 가정 변인, 학교 변인을 선정하여, 아동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상황인식이 아동 변인, 가정 변인, 학교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들 변인이 아동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상황인식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상황인식은 아동 변인, 가정 변인, 학교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우선 아동 변인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인권감수성이 높고, 인권상황인식이 보다 긍정적이

었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권리인식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김영남, 2009; 김영신, 2010; 남동현, 2010; 류지현, 허창영, 2008; 유성렬, 김신영, 2013; 이은경, 2013; 황혜원, 2011)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성차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적인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인권감수성이 높고 인권상황인식이 긍정적인 이유가 여아가 남아보다 더 수용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인지(류지현, 허창영, 2008), 또는 공감능력이 더 높아서 사회적 약자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인지, 성장과정 과정에서의 차별적인 대우와 같은 사회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 인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추후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한편 인권감수성은 4학년이 5,6학년보다 높았으나, 인권상황인식은 학년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4,5학년보다 6학년이 권리인식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황혜원, 2011)와는 일치하지 않은 반면 5학년이 6학년보다 참여권 인식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남동현, 2010)와는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년 및 학교급간 차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겠지만, 이는 인권교육의 적기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가정 변인으로 인권감수성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일 경우, 아동이 가정형편을 잘사는 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방임경험이 없는 경우, 부모체벌경험이 없는 경우, 부모육설 경험이 없는 경우, 의사결정시 부모가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경우 아동의 인권감수성이 높았다. 그리고 인권상황인식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일 경우, 방임경험이 없는 경우, 부모육설경험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시 부모가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경우 아동의 인권상황인식이 보다 긍정적이었고, 가정형편과 부모체벌경험에 따라서는 아동의 인권상황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인권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선행연구들(유성렬, 김신영, 2013; 유지민, 2004; 이은경, 2013)과 일치하는 결과로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녀들도 인권과 관련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정형편의 경우 본 연구에서 인권감수성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인권상황인식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유성렬과 김신영(2013)의 연구에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고등학생들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 성평등,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 금지, 국내 외국인에 대한 동일한 교육 기회 부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권상황인식에 있어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않는 결과이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경제적 성공에 따른 부의 대물림을 당연시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무관심해지는 것인지 연령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의사결정시 부모가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경우 아동의 인권감수성이 높고 인권상황인식이 긍정적이라는 결과는 선행연구들(남동현, 2010; 유성렬, 김신영, 2013; 함민아, 강현아, 2012)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가정에서의 크고 작은 일이나 자신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부모가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가의 여부는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성인으로부터 자신의 생각을 의미 있는 의견으로 존중받는 기회를 갖게 되어 궁극적으로 인권감수성과 인권상황인식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변인으로 인권감수성의 경우 학교폭력경험이 없는 경우, 교사체벌경험이 없는 경우, 교사 욕설경험이 없는 경우, 학교생활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인권감수성이 높았다. 그리고 인권상황인식의 경우 학교폭력경험이 없는 경우, 학교생활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인권상황인식이 보다 긍정적이었다. 교사체벌경험과 교사욕설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아동의 인권상황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학교폭력경험은 어려움(따돌림 등)에 처한 친구를 돕겠다는 인권감수성, 자유로운 의사표현 권리 등의 인권상황인식을 보다 부정적으로 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교육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따돌림 및 폭력행위가 학교청소년의 존엄권, 평등권, 안전권, 자유권, 평화권, 교육권 등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타인의 권리존중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대표적인 학교 내 반인권적 현상이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 아동의 인권감수성 향상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상황인식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둘째, 아동의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학교생활, 학년, 의사결정시 부모태도, 성별, 교사욕설경험, 방임경험, 학교폭력경험의 순서로 아동의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아동이 학교생활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가정에서 의사결정시 부모가 아동의 의견을 존중할수록, 남아에 비해 여아가, 교사욕설경험이 없을수록, 방임경험이 없을수록, 학교폭력경험이 없을수록 아동의 인권감수성이 높다. 한편 아동의 인권상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성별, 부모욕설경험, 학교생활, 의사결정시 부모태도, 아버지 학력의 순서로 아동의 인권상황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즉 남아에 비해 여아가, 부모욕설경험이 있을수록, 아동이 학교생활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가정에서 의사결정시 부모가 아동의 의견을 존중할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인권상황인식이 더 긍정적이다.

가정 변인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양육방식으로 방임, 부모체벌, 부모욕설을 살펴본 있었는데, 방임의 경우 아동의 인권감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당연히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인권상황인식의 경우에는 부모욕설경험이 있는 경우에 오히려 인권상황인식이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욕을 한다는 것이 자녀를 무시하거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정도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한편 일상적으로 부모에게 욕설을 듣는 경우 아동이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의사표현의 권리 등에 대해 보다 분명한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욕설도 일종의 체벌 및 학대에 해당하므로 이에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아동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상황인식에 학교생활에 대한 지각이 대단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친구를 쉽게 사귄 수 있고 친구들이 나를 배려해주고, 교사가 학생들을 배려해주는 친인권적 학교 환경이 아동의 인권 상황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서(김영신, 2010, 유성렬, 김신영, 2013), 아동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우선 친인권적 학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Deacon, 2013). 특히 학교생활에 대한 지각은 따돌림 등 어려움에 처한 친구가 있으면 돕겠다는 인권감수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친인

권적 학교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학교 변인으로 교사육설경험이 아동의 인권감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신체적 체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단체기합, 오리걸음 등과 같은 훈육차원의 체벌은 금지되어 있지 않고,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금지되어 있지 않다(김경준, 이호균, 서여정, 김광혁, 김형욱, 윤상석 등, 2014). 선행연구(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2013)에서도 신체적 체벌뿐만 아니라 언어폭력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조사대상 2,912명 중 941명의 학생이 육설을 들었던 경험을 했고, 402명의 학생이 신체적 특성이나 외모를 놀리는 것, 374명의 학생이 위협적인 말을 들은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아동의 인권 신장과 관련하여 체벌 및 육설의 의미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논의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도출하는 작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개인 특성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학교 변인이 아동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상황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전국의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규모 표본을 구성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인권감수성과 인식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국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아동 인권의 실태를 알아보는데 그쳤다면, 본 연구는 영향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후 아동의 인권교육 및 인권정책 마련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우선 인권상황인식의 경우 아동, 가정, 학교 변인의 설명력이 낮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런데 이는 본 연구가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하여 변인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한계점으로, 생태체계이론은 아동을 둘러싼 모든 맥락을 고려한 연구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정옥분, 2003). 가능한 모든 변수를 나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요하게 차이를 보이는 변수만을 선정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보으로써 아동의 인권상황인식에 미치는 변수들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방임, 부모체벌, 부모육설, 학교폭력, 교사체벌, 교사육설 등 부정적 환경변수에 대해 경험 유무만을 살펴보고, 심각성 정도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정적 경험의 빈도나 심각성을 고려하여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는데, 연령이 아동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상황인식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으므로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을 포함하여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인권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인권교육의 시기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구정화, 설규주, 송현정 (2009).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2002).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경준, 이호균, 서여정, 김광혁, 김형욱, 윤상석 등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V: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연구보고 14-R14-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남 (2009). 초등학교 아동의 권리인식과 권리옹호와의 관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신 (2010). 친인권적 교실 문화가 청소년의 인권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왕준 (2012). 초등학생의 인권감수성과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동현 (2010). 참여권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지현, 허창영 (2008). 대학생의 인권의식에 대한 요인분석 및 인권태도의 인식수준. **민주주의와 인권**, 8(1), 175-210.
- 모상현, 김영지, 김영인, 이민희, 황옥경 (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 V : 발달권·참여권 기본보고서**(연구보고 10-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모상현, 김희진 (2009).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V: 생존권·보호권 인권실태조사**(연구보고 09-R1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배경내 (2006, 9). **학생 인권의 현주소와 과제**. 학생인권 관련 및 전문가와 함께 하는 학생인권 증진 인권교육 토론태담 자료집. 3-22.
- 유성렬, 김신영 (2013).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연구보고 13-R13-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지민 (2004). 아동의 권리 인식 및 공감과 권리옹호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미 (1999). 인권의식 발달경향에 관한 연구: 사형, 고문, 장애인 처우에 관한 추론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6(2), 103-120.
- 이은경 (2013). 인권의식 수준과 학교폭력 태도와의 관계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연, 황옥경, 김효진 (2009). 아동과 권리. **아동학회지**, 30(6), 1-13.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2013). **변화를 거부하는 학교, 내몰리는 학생들! 2013, 학생 인권은 여전히 목마르다 - 전국 학생인권 생활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 임희진, 김현신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연구보고 11-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 김현신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I**(연구보고 12-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옥분 (2003). **아동발달의 이론**. 서울: 학지사.



- 정옥분 (2010). **아동연구와 통계방법**. 서울: 학지사.
- 조윤정 (2006). 고등학생들의 인권감수성과 실제 인권 옹호 경향과의 상관성 조사 연구: 경기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진 (2000). 아동의 권리와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학연구*, 7(2), 277-300.
- 함민아, 강현아 (2012). 아동이 지각한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참여권 인식과 참여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6(4), 565-589.
- 홍봉선, 아영아 (2012). 인권감수성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3, 307-335.
- 황혜원 (2011). 아동의 권리인식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3(4), 289-308.
- Branson, M. S. & Torney-Purta, J. (1982). *International human rights, society, and the schools*. Washington, DC: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 Bronfenbrenner, U. (1976).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a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Deacon, B. (2013). *Global social policy in the making: The foundations of the social protection floor*. Cambridge: Policy Press.
- Ife, J. (2012). *Human rights and social work : Toward rights-based practice* (3r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ichert, E. (2003). *Social work and human rights: A foundation for policy and practice*, **사회복지와 인권**(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연구위원회 옮김). 서울: 인간과 복지(원판 2008).
- Schultz, L. H., Selman, R. L., & LaRusso, M. D. (2003). The assessment of psychosocial maturit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mplications for the evaluation of school-based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Journal of Research in Character Education*, 1(2), 67-87.
- Thomas, N. (2007). Towards a theory of children's particip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5(2), 199-218.
- Wade, R. C. (1994). Conceptual change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A case study of 4<sup>th</sup> grades' understanding of human right.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22(1), 74-95.

논문투고 : 15.12.14  
수정원고접수 : 16.01.29  
최종게재결정 : 16.02.11